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5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8일(음력 5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종무행정 의혹 제기에 조계종 "단호히 대처"

7월 2일, 대변인 언론 브리핑
종회 · 유산 귀속 등 의혹 해명
"비방 행위엔 법적 조치" 경고
"'천년을 세우다' 집행 투명…
사업 초기부터 종합 종책사업"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무행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비방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대변인이자 기획실장인 묘장 스님과 교육부장 유정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은 7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종무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담화문에서 성원미달로 무산된 제238회 중앙종회 임시회와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일부 종회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무원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부실장 스님들이 당일 배석하는 등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성원 미달로 임시 중앙종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종회의원들이 '집행부가 종회 개최를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단체가 제기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유증재산 귀속 의혹' '불국사·금산사 관련 의혹' 등도 이미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은 "자승 대종사의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됐으며, 불국사와 금산사 관련 의혹과 비위 혐의 역시 호법부 조사를 마쳐 징계 회부 또는 종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와 재판 결과도 최종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는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지만,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총무원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분별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종단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의혹과 비방으로 점철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도 6월 2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천년을 세우다' 기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 취지와 기금 집행 현황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천년을 세우다' 사업은 시작부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종합 종책사업'이다.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결집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을 계승하고, 선명상과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해 미래불교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 불사라는 설명이다.

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각 사업 목적에 맞춰 투명하게 집행됐다"며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천년을 세우다'의 총 모연금은 86억5385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79억9174여 만원(92.35%)은 특정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포괄 기금이다. 지정기탁금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에 4억7206만원(5.45%),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1억9005만원(2.20%) 등으로 집계됐다.

미래본부는 "모연 동참 대중이 지정한 목적기탁금은 단 1원도 유용 없이 해당 사업에 전액 집행됐다"며 "포괄 모연 기금 역시 종합 종책 목적에 맞춰 엄격하게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단법석승가회 회장 도정 스님, 부회장 허정 스님, 대변인 진우 스님은 7월 2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 스님 유산 환수 절차 △불국사·금산사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새로 런칭한 '붓쯔(BUDDHZ)'의 전법회관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불교 굿즈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나가다 득템"…불교 굿즈몰 '붓쯔' 뜬다

조계종 도반HC, 브랜드 런칭
서울 전법회관 1층에 매장 오픈
'하체붓다' 등 60여 종 선봬
"불교 굿즈로 佛며들게 할 것"

서울 종로 전법회관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붓쯔(BUDDHZ)' 매장. 여자친구와 함께 매장을 찾은 이종헌(40) 씨는 '취향저격' 불교 굿즈들을 연신 들었다 놨다 하며 신중하게 살폈다.

"앞을 지나가다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왔는데 제 취향의 굿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요즘 말대로 '힙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티커나 여러 가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여자친구인 김태림(39) 씨 역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생일 선물을 '붓쯔'에서 구매했다.

"회사에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불교 굿즈를 정말 좋아하더군요. 최근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굿즈를 많이 사 온 것을 봤어요. 때마침 회사 동생이 내일 생일이어서 얼떨결에 선물까지 구매했는데 저도 무척 만족스럽네요."

'붓쯔'는 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새로 런칭한 굿즈 전문 브랜드다. 전법회관 매장은 '붓쯔'가 출시한 개성 만점 불교 굿즈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7월 1일 오후 늦은 시간대에 찾았음에도 삼삼오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친구들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도솔산 선운사' 전시를 관람하고 매장을 찾은 조윤자(72) 씨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굿즈 라인업에 감탄했다. 조 씨는 "단청 문양이 들어간 텀블러에 눈길이 간다"며 "오늘 처음 매장에 왔는데 예쁜 굿즈들이 너무 많다"고 즐거워했다.

현재 매장에는 티셔츠, 키링, 그립톡, 엽서, 리무버블 스티커, 책갈피, 양말, 우산 등 60여 종의 상품이 입점해 있다. 이상욱 도반HC 사업운영팀장은 "세대에 따라 유행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금은 제품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테스트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대표 상품은 단연 '하체붓다' 시리즈다. 이 팀장은 "부처님께서 '항상 중심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서는 하체를 먼저 잡고 중심을 잡자는 의미를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당시 티셔츠 2000장 이상이 완판됐다"며 "홍대나 지하철에서도 티셔츠를 입은 분들이 보여 기획한 입장에서는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도반HC는 '하체붓다'를 시작으로 '검색붓다', '버블붓다' 등 부처님 캐릭터를 활용한 시리즈로 확장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검색붓다', 풍선껌을 부는 '버블붓다'처럼 재미있는 발상에 젊은 대중의 호응이 좋았다. 이 같은 방식의 불교 굿즈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굿즈 브랜드 런칭으로 도반HC의 사업 방향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상종 도반HC 총괄본부장은 "그동안은 밖에서 잘 되는 사업이나 상품을 가져와 절집 안에서 파는 방식이었다"면서 "이제는 불교문화 콘텐츠를 일반 시장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제품으로 불교를 풀어내는 것이 굿즈 제작의 핵심"이라며 "불교 굿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이 대중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반HC는 전법회관 매장을 거점으로 전국 사찰 불교용품점 입점과 팝업스토어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전법회관 1층 매장은 1호점이자 거점"이라며 "사업이 자리 잡으면 지역에 2호점, 3호점을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국 사찰의 용품점에 '붓쯔' 이름으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반HC는 오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역 롯데아울렛에서 팝업스토어도 진행한다. 이 본부장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박람회와 회사 SNS를 본 외부 업체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라며 "국내 기반을 먼저 다진 뒤, 불교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AI 콘텐츠'로 돌아왔다 9면

관심이 신행으로 – ③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 변화 13면

